

# 유통업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공정위, 적발시 피해액 3배 배상... 쇼핑몰·아울렛 등 규제 대상 확대로 기존 관행에 제동 걸릴 듯

앞으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쇼핑몰과 아울렛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통분야 근절대책에는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질러온 '갑질'에 방점을 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에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에 7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반 금액에 140%를 곱한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에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또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있어 지역 납품업체의 이용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 조정위원 위촉 임명권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 강동오케익-조이팜, 우리쌀 소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동오케익은 16일 전주시 성덕동 소재 분사 3층에서 청주시 및 청원생명농협법인(주)조이팜과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강동오케익과 청주시, 조이팜은 청원생명쌀 '원료미', '파보일드 리이스'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사업화, 활성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강동오케익은 청원생명쌀 '원료미', '파보일드 리이스'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실용화 되도록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조이팜은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품질의 쌀만 공

급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강동오케익은 우리 쌀로 만든 초코파이 제품과 비빔밥과이, 즉석밥, 김과 쌀 여러가지 곡물을 이용한 김스넵 등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며, 소비자가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판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동오케익 브랜드인 중년제과는 전주 한옥마을 대표적 인 떡거리인 우리밀 수제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난해 미국 수출 및 올 상반기 중국대만에 우리밀 초코파이 제품을 1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품질, 맛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옥수수수염' 으로 혈관 질환 예방해요

### 농진청, 추출물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효과 확인

대표적인 여름 간식인 옥수수의 수염추출물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이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국대학교와 공동 연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이와 관련해 특허를 출원했다.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많이 들어 있는 메이신 계통 물질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혈관질환 개선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효능을 동물실험으로 검정한 결과, 간 조직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동물실험은 쥐에게 정상식이를 한 그룹과 고지방식이를 한 그룹, 고지방식이와 동시에 옥수수수염 추출물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같이 투여한 그룹으로 나눠 7주 동안 진행했다.

실험 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의 간 조직 내 지방

축적 여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섭취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간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18%, 중성지방 함량이 약 38%, 혈청 내 콜레스테롤 함량이 약 8% 감소했다.

한편,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의 간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달알엔에이(mRNA) 발현 정도를 알아본 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간 조직에서 'HMG-CoA'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혈액과 간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옥수수수

염으로 차를 끓여 먹으면, 이노산 용과 혈압강화 및 부종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옥수수수염은 각종 음료와 화장품 첨가 및 식의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박기도 과장은 "앞으로도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힘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이스타항공,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 확대 실시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항공업계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

### 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0~15% 할인을 시행해 오며 장애인 및 고객에게 폭넓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발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변경된 운임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항공으로서 고객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제주도서 농산물 특별판매전 개최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내 중문농협 및 제주축협 이라지점 하나로마트에서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전북농산물을 공급한 전북도와 농협은 올해에도 입실 복숭아, 정음 수박, 김제 포도 등 5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6개 제철 과일을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판매전을 통해 제주도민

뿐 아니라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에게 전북 농산물 브랜드인 '예담제'를 비롯한 전북 우수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특목한 홍보 효과를 거둔다는 평가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소량 다 품목 구조인 전북 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촉농협 구현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북 관내 주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2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

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속 기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에 대해서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